

산사에서 만끽하는 특별한 명절

‘2017년 설맞이 템플스테이’

휴식·체험·명상 등 유형 다양

‘민족의 명절’ 설날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스님)이 사찰의 고즈넉함을 만끽할 수 있는 ‘2017년 설맞이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전국 사찰 40여 곳에서 합동차려, 웃놀이·널뛰기 등 전통 문화체험, 산행, 스님과의 차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1박2일 또는 2박3일, 3박4일 등 연휴기간 동안 개인 일정에 맞춰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다.

인제 백담사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맥놀이(사물) 명상, 요가형 108배, 탑놀이, 숲 포행(걷기명상) 등으로 구성된 ‘제10회 우리 설 희망 템플스테이’를 연다. 동해 삼화사도 27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 또는 2박3일 일정으로 여는 ‘자연 속에 나를 쉬다’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의 가볼만한 곳 10선’으로 선정한 추암 촛대바위에서 일출을 보고 풍동 띄우기, 무릉계곡 두타산 포행, 웃놀이 대화 등을 진행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설날을 앞두고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사진은 지난해 설맞이 템플스테이 모습.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부산 흥법사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설맞이 템플스테이 색동저고리’를 통해 소원지 작성과 감사 명상하기, 설맞이 타종, 아침에 불 및 할링 108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대구 동화사와 김천 적지사는 27일부터 30일, 27일부터 31일까지 각각 사찰에서 머물며 심신의 안정을 찾는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연다. 공주 갑사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만의 행복여행-꿈맞이 템플스테이’를 열고 마음나누기, 꿈에 기를 넣는 108배 및 여의보주 만들기, 웃놀이, 계룡산 트레킹을 진행한다. 해남 대흥사는 27일부터 29일까지 요가명상, 108염주 만들기, 북미륵산 산행, 숲길걷기 등을 체험하는 설맞이 템플스테이를 연다.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럽다면 서울 금선사의 ‘설 연휴 자율체험 템플스테이(27~30일)’, 서울 진관사의 ‘사찰음식 템플스테이(28일)’, 서울 화계사의 ‘참 나를 찾아서 떠나는 설날 템플스테이(28~29)’, 가평 백련사의 ‘정유년 설맞이 템플스테이(27~30일)’, 여주 신륵사의 ‘설휴 템플스테이(27~30일)’ 등 수도권에서 만나볼 수 있는 산사체험도 가 볼만하다.

사찰	프로그램 제목	일정	연락처
서울 금선사	설연휴 자율체험 템플스테이	1월27~30일 (기간중 선택)	02-395-9911
서울 국제선센터	설맞이 템플스테이	1월27~28일	02-2650-2213
서울 진관사	삼각산에 걸린 일출이 내게 말하네. 지난 시간 잘해 왔노라고	1월28일	02-388-7999
서울 천축사	설맞이 템플스테이	1월27~29일	02-954-1474
서울 화계사	참 나를 찾아서 떠나는 설날 템플스테이(체험형)	1월28~29일	02-900-4326
강화 연등국제선원	설날 템플스테이	1월27~30일 (기간중 선택)	032-937-7033
가평 백련사	정유년 설맞이 템플스테이	1월27~30일	031-585-3853
용인 법륜사	설 특별 템플스테이	1월27~29일	031-332-5703
남양주 봉선사	설연휴 휴식형 템플스테이	1월27~30일	031-527-9969
여주 신륵사	설휴 템플스테이	1월27~30일	031-885-9024
양평 문운사	까치까지 템플스테이(체험형)	1월27~29일	031-773-3797
형성 응주사	설맞이 템플스테이	1월27~28일	031-235-6886
양주 옥지장사	우리 우리 설날 템플스테이	1월27~29일	031-871-0101
용인 화운사	가는 해 오는 해 템플스테이	1월27~28일	031-337-2576
영동 영곡사	설맞이 템플스테이	1월28~30일	043-743-8843
공주 갑사	나만의 행복여행(꿈맞이 템플스테이)	1월27~30일	041-857-8921
공주 마곡사	까치까지 설날은(체험형)	1월27~28일	041-841-6221
예산 수덕사	정유년 설맞이 템플스테이	1월28~29일	041-330-7789
세종 영평사	가족과 함께 하는 설날템플스테이	1월27~28일 1월28~29일	044-854-1854
충주 석종사	한 해를 바라보는 설날임(휴식형)	1월26~29일	043-854-4505
강원 고성 건봉사	설맞이 템플스테이	1월27~28일	033-682-8103
인제 백담사	제10회 우리설 희망 템플스테이	1월27~28일	033-462-5565
동해 삼화사	자연속에 나를 쉬다(휴식형)	1월27~30일	033-534-7661
속초 신홍사	설날,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1월27~28일	033-636-7044
평창 월정사	오롯이 바라보기	1월27~30일	033-339-6800
경남 고성 문수암	설연휴 템플스테이	1월27~31일	055-672-8078
통영 용화사	까치 까치 설날은	1월27~28일	055-645-3060
경주 굴굴사	선무도와 함께하는 2017 설날 템플스테이	1월27~30일	054-775-1689
포항 보경사	설날템플스테이(휴식형)	1월26~30일	054-262-1804
성주 심원사	설맞이 템플스테이(자율형)	1월27~30일	054-931-6887
봉화 축서사	함께하는 설날(휴식형)	1월27~30일	054-673-9962
김천 적지사	내 마음의 작은 침표(휴식형)	1월27~30일	054-436-6084
대구 동화사	오롯한 휴식, 설레는 설맞이	1월27~31일	053-980-7979
부산 흥법사	설맞이 템플스테이 색동저고리	1월27~30일	051-508-0345
해남 대흥사	설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1월27~29일	061-535-5775
해남 미항사	설맞이 휴식형 템플스테이	1월27~30일	061-533-3521
정성 백암사	설맞이 템플스테이	1월27~29일	061-392-7502
순천 선암사	설맞이 템플스테이	1월27~30일	061-754-5247
순천 송광사	설맞이 휴식형 템플스테이	1월27~28일	061-755-0107
화순 쌍봉사	참!	1월27~30일	061-372-3765
구례 천은사	설레는 첫 만남(설날 템플스테이)	1월27~29일	061-781-4800
구례 화엄사	2017 설맞이 웃놀이 템플스테이	1월27~28일	061-782-7600
부안 내소사	설맞이 자율 템플스테이	1월27~31일	063-583-3035
고창 선운사	설날 템플스테이	1월28~29일	063-561-1422

특별기고

희망 안겨준 조계종단, 감사합니다

비장애인들이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은 더욱 살아남기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폭풍에서 저희들도 자유했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의 중심 문제는 인간의 상호관계라고 들었습니다. 함께 하는 존재, 공동체의 소중함입니다. 2014년 조계종에서 ‘빈곤문제 해소 위한 무차대회’에 초청해 주시고 이후 2년 동안 1사찰 1개 단체 결연으로 12개 빈곤 단체에 매월 10만원씩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불교가 소외와 배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싸우는 저희에게 손길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내밀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도 모자라 다시 또 후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16일 있었던 ‘1사찰 1단체 후원 결연식’에서 총무원장 스님의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늘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든든한 관계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1600일 넘게 농성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신체에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매기고, 복지서비스를 오로지 의학적 장애등급에 의해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1급 장애인을 2급, 3급으로 하라시켜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제’는 본인에게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1촌 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비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조항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 부양의 책임을 국가 복지제도가 아닌 가족에게 전가합니다. 장애인

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부양의 무거운 짐을 지녀야 하는 현실을 살해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올해도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연기(緣起)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조건에 기대어 존재한다는 것, 그 조건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떠한 공적지원도 없이 광화문 농성장을 1600여일이 넘도록 지킬 수 있는 힘은 1사찰 1단체 후원과 같이 저희의

활동을 지지해주고 기발 수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정유년을 맞이하여 조계종 신년하례법회에서 “새로운 아침을 열어 버린다고, 소외된 사람들의 고난과 비애를 덜어주고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중생들과 더불어 항상 함께해야 할 것”이라는 법어를 나누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권력의 교제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에서의 배제, 격리, 소외를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장애인과 빈민들이 비로소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온 세상이 맑고 향기롭게

‘美중서부 해외특별교구’ 설립 박차

교구 추진위·LA조계종聯 출범

지난 2011년 미동부 해외특별교구가 결성된 데 이어 미국 중서부지역에서 조계종의 2번째 해외특별교구 설립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미중서부해외특별교구 추진위원회와 LA조계종연합회(조계종남가주사원연합회)는 지난 15일 미국 LA 관음사에서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미중서부해외특별교구 추진위원회는 2011년 남가주(남부 캘리포니아주) 조계종 사찰 연합모임이 결성되지 못해 한차례 실패했던 경험을 교훈삼아, 특별교구 출범을 위한 중심 역할을 맡을 LA조계종연합회를 이날 함께 출범시켰다. 미중서부해외특별교구 추진위원장과 LA조계종연합회장 소임은 현일스님(법왕사 주지)이 맡았다. LA조계종연합회는 미국 남가주지역 한인 사찰 20여 곳 중 범암사와 달마사, 고려사, 반야사 등 15곳의 조계종 사찰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중서부해외특별교구 추진위원회에는 남가주를 중심으로 북가주, 중부, 하와이, 캐나다 지역의 한인 사찰들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미중서부해외특별교구 추진위

원장 현일스님은 취임사에서 “미국에 한국불교가 전래된 50년이 넘는 동안 여러 스님과 불자들이 개별적으로 원력을 갖고 포교해 왔지만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LA조계종연합회가 모체가 돼 미중서부해외특별교구를 출범시켜 화합하고 함께 정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남가주불교사원연합회 회장 이·취임식과 신년하례 자리도 겸해 열렸다. 묘경스님(고려사 주지)에 이어 새 회장으로 지암스님(관음사 주지)이 추대됐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지난 15일 미국 LA 관음사에서 열린 미중서부해외특별교구 추진위원회 및 LA조계종연합회 출범식.



아름다운동행이 지난 17일 시상식을 열고 지구촌공생회 등 9개 단체에 총 1억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NGO에 1억원 지원...“세상 편견 허물 것”

공생회 등 9개 단체 선정

아름다운동행이 올해 장애인·청소년, 결혼이주여성,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등을 위해 자비나눔을 펼칠 단체를 지원한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NGO 및 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 시상식을 열고 지구촌공생회 등 9곳에 총 1억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NGO 및 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은 장애인 독거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를 격려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공모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7번째 진행된 공모사업에는 총 183곳이 공모에 신청했으며 그 중 9개 단체가 선정됐다. 국제개발 및 구호지원 분야에는 지구촌공생회 네팔 빈두케사르국립고등학교 ‘빈두케사르 국립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복구 지원’ 사업 등이 선정돼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시상식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어려운 일을 함께 해주고 있는 각 단체들이 고맙다”며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총단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미래 향한 새불교운동 전개”

진각종 70년사 정리 등 추진

진각종이 정유년을 ‘진각



100년을 향한 진각새불교운동 원년의 해’로 삼고 희망과 온기가 넘치는 종단이 될 것을 서원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사진)는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진각문 화전승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진각 3세대가 중심이 되는 진각 100년의 비전을 마련하고, 폭넓은 공감으로 국민화합과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종단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각종은 30대 집행부 역점사업으로 진각종 70년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기존의 통리원과 교육원 기능을 보강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총무혁신을 펼치는 한편 교구와 심인당의 교화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진각종은 진언과 경전독송 등 모든 의례를 표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각의범을 정비하고 역사자료실 신설과 진각 70년사 도서 및 영상콘텐츠화 작업을 실시한다. 또 교구와 심인당 교화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포교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특화심인당의 운영, 신학단체 정비, 신구 심인당 개설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사회를 선도하는 종단상 구원에도 앞장선다. 이를 위해 사회와 종단이 소통하는 종단 교화의 새로운 전형을 마련하고, 종단 교화의 기본인 가족교화와 지역교화의 새로운 사례 등을 개발하기 위한 ‘진각문화사업단(가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불교계 소통하며 전통문화 계승”

민주당불자회장 오영훈 의원 취임

더불어민주당 불자회 신

임 회장에 오영훈 국회의원(원내대표·사진)이 취임했다. 오영훈 회장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취임법회에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 및 당직자까지 아우르며 당 차원의 실행 활동을 전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계와 적극 소통하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조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본격적인 불심 집기에 나설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기회실장 주경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오영훈 의원은 항상 낮은 자세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정치인”이라며 “오늘의 서원이 나라와 국민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1996년 민주당 불자의 원 모임인 연등회 발족을 주도했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대보살행으로써 국민이 바라는 희망의 불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장영섭 기자 fue1@ibulgyo.com

“낯은 패러다임 벗어나

열 사람의 한 걸음 지향해야”

‘탄핵 이후 불교’ 역할 세미나

이도흠 한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서울 불교여성개발원에서 범불교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탄핵 이후 새로운 사회 만들기 불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낯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흠 교수는 ‘헬조선’이라 풍자되는 현 대한민국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희망은 아직 남아있다”며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즉,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새 패러다임은 △생명과 자연,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 △신자유주의 체제 극복과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의 전환 △대의민주제와 참여민주제 도입을 통한 제도 변화 등이다.

이 교수는 “한국 불교도 수행과 재정의 분리 체계 확립, 사유재산의 헌법, 감시체계 확립 등을 통해 하나씩 쇄신을 이뤄가야 한다”며 “사회 구성원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신나게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노래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국가를 경영하고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